

# 사슴의 여름철 사양관리

여름철이 되면 사슴은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저녁에 주로 활동하고 무더운 낮에는 시원한 그늘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이 시기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섭취하는 사료의 양이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의 섭취량과 같을 정도로 밤에 주로 활동하게 된다. 한낮에 기온이 30℃를 넘어가게 되면 운동으로 인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료를 먹지 않고 그늘에서 가만히 있게 된다.

특히 장마철에는 질병이 만연하는 시기이며, 고온다습한 날이 계속되면서 사료가 부패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사슴은 소에 비해 반추기능이 약해서 제조일자가 오래 되어 약간이라도 변질된 배합사료를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먹이통 주위의 땅에 떨어져 있는 풀들은 사료급여시에 항상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 한다. 또 급수통은 2~3일에 한번씩 청소해 주고 물은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

초여름이 되면 뽕을 절각하기 시작하는데 절각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위험하므로 서늘한 새벽이나 해질무렵의 저녁에 절각하는 것이 좋다. 절각후 다시 재생뽕을 절각할 예정인 사슴들에게는 절각전과 같이

콩등의 보충사료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슴들에게는 콩의 급여를 중단해도 된다.

절각 계절인 여름철은 사슴에 있어 체내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시기인데 절각에 의한 채혈과 스트레스로 인해 사슴은 양분축적에 지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절각 시에는 과도한 채혈을 삼가해야 하고 채혈후에는 즉시 활성비타민제 등을 투여하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손실된 체력을 가능한 빨리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 다음해의 녹용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첫번째 조건이 바로 이 시기에 체내에 충분한 양분을 저장하였는가 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암사슴은 분만기를 맞게 되는데 국내에서 사육되는 사슴들은 한마리의 새끼를 분만하는 단태동물로 간혹 쌍둥이를 분만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리마틴(Free Martin : 이성쌍태에서 태어난 선천적 불임의 암송아지) 이 있다.

분만시기가 다가오면 임신한 암사슴들을 정기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는데 분만의 징조는 다음과 같다.

① 분만일이 임박하게 되면 음부가 부

어서 붉은 기를 띄게 되고 유방이 부풀어진다.

- ② 분만 12~24시간전부터는 불안해 하며 사슴장내를 돌아 다닌다.
- ③ 진통이 시작되면서부터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간혹 머리를 돌려 복부를 불안한 듯이 바라본다. 분만이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가 커진다.
- ④ 현저히 부풀어진 배가 아래로 처진다.
- ⑤ 허리나 골반의 근육이 느슨해지고 꼬리기부의 양쪽살이 깊이 패인다.
- ⑥ 음부가 부으면서 늘어지고 점액이 흐른다.
- ⑦ 식욕이 떨어져 사료를 거의 먹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본다.

분만전후에는 사슴의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져 흥분하기 쉬우므로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사육사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같이 사슴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슴

은 야생성을 갖고 있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잠시후 태어날 새끼가 외부의 적에 노출되는 것이 겁이 나기 때문이다.

분만은 간혹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자연순산을 하며 이를 지켜보는 사육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사슴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파수가 된 후 약2시간까지는 새기나 어미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시간 동안은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새끼가 역산이 되거나 난산이 될 경우에는 인공배출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소와 같이 마구잡이로 당기면 안되고 어미가 힘을 줄 때 같이 힘을 주어 자연스럽게 꺼내야 한다. 분만후에는 어미가 본능적으로 새끼의 모든 후처치를 해주므로 사육사는 오염으로 감염이 우려될 때에만 새끼의 배꼽을 소독해 주기만 하면 된다.

<표> 사슴과 기타 반추가축의 유성분 및 열량가

구 분	유 성 분					열 량 가
	수 분	지 방	조단백질	유 당	회 분	
레 드 디 어	%	%	%	%	%	kcal/g
비 유 초 기	77.0	8.1	9.3	4.3	1.3	-
비 유 중 기	78.0	8.5	8.1	4.0	1.2	-
비 유 말 기	77.0	9.2	8.5	3.8	1.2	-
엘 크	80.0	7.5	6.2	4.1	1.1	1.1
원 꼬 리 사 슴	77.5	7.7	8.2	4.6	1.5	1.4
꽃 사 슴	63.0	19.0	12.0	3.4	1.4	-
펠 로 우 디 어	75.0	13.0	7.0	6.0	-	-
젓 소	87.6	3.7	3.2	4.6	0.7	0.7
면 양	81.8	7.1	5.0	4.9	0.8	1.1

포유기 동안 암사슴은 <표>와 같이 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의 단백질과 지방을 젖을 통해 새끼에게 빼앗기게 되므로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기존의 사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녹용성장기의 숫컷과 같이 콩등의 보충사료를 급여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므로 어미의 건강은 물론 새끼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며 발정시기도 앞당겨지게 된다.

한편 5~7월에 걸쳐 새끼가 분만된다. 어미사슴은 새끼를 분만하면 주의의 적으로 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의 몸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않게 하기 위해 새끼의 몸을 활아주어 털에 묻어 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준다. 분만후 1~2시간정도 후에는 새끼사슴은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어미의 젖을 찾아먹기 시작하며 보행이 불안정한 상태로 어미를 쫓아다니다가 하루가 지나면 완전히 걸어도닐 수 있게 된다.

사슴은 아직도 야생성을 가진 동물로서 어미는 자기 스스로 새끼를 보살피야 한다는 본능때문에 새끼를 쫓아다니며 수시로 새끼의 항문을 활아주어 배변을 도와주고 젖을 먹인 후에는 새끼를 나무밑이나 먹이통뒤 또는 사육장내의 구석진 곳 등 눈에 잘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숨겨놓고 항상 주위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간혹 새끼의 항문을 너무 심하게 활아주어 항문이 헐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미가 불안정을 느껴 새끼에게 더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므로 어미에게 불안을 느낄만한 행동은 삼가해서 안정감을 주어 미리 예방해 주어야 한다. 또한 숫컷들은 다른 칸에 격리사육하는 것이 새끼에게 안전하다.

사육사는 특히 분만일로부터 생후 10일 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새끼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새끼에게서 하리가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주의를 게을리하여 새끼의 하리(설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심해져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새끼사슴은 치명적이다. 일단 심한 하리를 하게 되면 치유가 되더라도 성장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므로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하거나 예방이 중요하다. 새끼사슴의 변은 냄새제거를 위해 어미가 항문을 활으면서 배변하는 즉시 먹어 버리므로 육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색은 까만색으로 성록과 같은 펠렛형이 아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약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정도이지만, 하리가 시작되면 변이 연한노란색이 되고 어미가 아무리 깨끗이 활아 주어도 항문주위나 뒷다리의 털에 묻게되며 탈수로 인해 기력을 잃게 되고 식욕이 감퇴되어 어미가 배변을 시켜주어도 잘 먹지를 않는다.

이러한 새끼사슴의 하리 원인은 다음과 같다.

- ① 출생시의 허약한 상태
- ② 급작스런 기온의 변화(특히 우기일 때)

③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세균오염

④ 비타민 결핍

⑤ 분만후 빨리 초유를 먹지 못하였을 경우 등

이러한 여러 원인중에서 ②와 ③이 주로 새끼의 하리를 유발시키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만할 자리에 미리 깔짚 등을 깔아주고 이슬이나 비를 맞지 않게 위를 막아주면 좋다. 일단 하리가 시작되면 초기일때는 설파제와 정장제를 1~2회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심할 때에는 새끼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설파제를 주사하고 보온을 시켜주면서 더운 수건등으로 복부를 마사지 해주면 좋다.

새끼는 생후 2~3주령부터는 풀을 먹기 시작하며 성록과 같은 변을 누기 시작한

다. 계속해서 어미들과 같이 두게되면 새끼들은 어미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만 먹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어미칸 옆에 새끼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새끼들에게 양질의 부드러운 풀과 단백질 함량이 17% 이상인 어린송아지용사료(사슴 전용사료)를 항상 부족하지 않게 급여해 주면 좋으며, 어미칸에서 새끼칸으로 통하는 문은 낮고 좁게하여 새끼들은 들어가도 어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준다.

한편 8월경 분만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모든 사슴들에게 구충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구충제로는 알벤다졸 제제의 구충제를 사용하면 된다.\*

<사슴사육 이론과 실제>에서 인용

## ♣ 녹용절각 순서

- ① 사슴이 마취되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 안정시키고 앞뒤 다리를 로프로 묶어 오른쪽으로 돌려 보정한다.
- ② 절각할 뿔과 각좌 부위를 물수건으로 잘 닦아 채혈시 불순물이 채혈용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③ 소독용 알코올로 절각할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다.
- ④ 각좌 밑을 지혈용 고무줄로 묶는다.
- ⑤ 각좌위 2~3cm 부위를 소독된 외과용 톱으로 평행하게 절단한다.
- ⑥ 절단부위를 소독된 탈지면으로 닦아내고 고무줄을 풀어 녹혈을 채혈한 다음 즉시 마시도록 한다.
- ⑦ 채혈이 끝나면 각좌 밑을 고무줄로 묶고 절단면을 소독된 탈지면으로 닦아낸 후 지혈 처치한다.
- ⑧ 지혈 여부를 확인후 붕대로 각좌위 부분을 묶어 주므로 오염을 예방한다.
- ⑨ 상처에 감염을 예방하며 사슴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항생제 주사, 비타민 및 간기능 강화제 주사등의 후처치를 한다.
- ⑩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사슴이 당장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풀어준다.